

몰트만의 창조론과 기독교교육의 생태학적 통전성 고찰*

이향순(장로회신학대학교 / 객원교원)

herun@hanmail.net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생태학적 위기와 회복의 과제 앞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몰트만의 창조론의 관점에서 재고한 글이다. 인류는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상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태계는 심한 몸살을 앓으며 이상 현상을 드러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와 고통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은 자연 세계를 향한 생태학적 감수성을 보다 통전적으로 접근하고 실제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몰트만은 오늘날 점증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는 세계가 인간의 소유라는 인간 중심적 생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태학적 세계의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창조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귄', '안식일을 통한 종말론적 새 창조'는 하나님 중심의 생태학적 세계의식을 집약해주는 주요 개념들이다. 이러한 몰트만의 창조론을 기초로 본 글은 기독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생태학적 감수성을 성례전적 창조공동체의 관점에서 살펴 보며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을 포함해 세계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종말을 향해 함께 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례전 공동체임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사귄 안에서 사람과 세계의 화해적 사귄을 중재하는 고난받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축하며 종말론적 창조의 완성을 지향하는 안식일 지키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킨 논문임.

이 교육은 무너진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교육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영역이 될 것이다. 몰트만의 창조론은 그동안 기독교교육이 간과하거나 외면했던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통전성 있는 기독교교육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생태학, 기독교교육, 환경위기, 몰트만, 창조론, 안식일

I. 들어가는 말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물질문명을 낳았다. 산업상 물질문명의 진보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간 가능성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자연현상은 획기적인 산업상의 발전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 아닌 사실 일깨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상기후 등 환경위기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구적 삶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겪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위협이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몰트만(2017)에 의하면 오늘날 자연에 대한 점증하는 산업상의 착취는 하나님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 흐름은 하나님을 ‘절대적 주체’로 상정하는 것이다. 절대적 주체자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 유지, 구원을 총괄하는 초월적 존재로서 세계와 무관계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여겨질수록 세계는 “피조와 땅”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전적 타자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은총을 덧입는 수동적 위치에 놓인다. 초월적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불연속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비자연적 의지

와 자연의 지배권에 대한 인간의 투쟁이 오늘날 환경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세계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기계론적 사고와 묵시 사상적 허무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몰트만, 2017, 46). 이런 세계관은 모든 생물에 대한 무관계성 및 초월적 무책임성을 증폭함으로써 인간과 생태계를 대상화하고 자연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반영한다.

본 논문은 하나님을 단 하나의 절대적 주체로 이해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한 '사귀'의 관계로 이해하는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의 생태학적 통전성의 의미와 실천성을 견지하고자 한다. 생태학적 통전성은 인간을 포함하여 생태계를 배타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관계적 연결의 목적을 지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oikos)에 생명의 영으로 거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의 원리로부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의 관점에서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기독교교육은 생태계가 겪고 있는 지구적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제안할 것이다.

II.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의 관점과 비판적 이해

코로나19의 등장은 경제적으로 실업률의 증가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수백만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늘날 인류가 접하고 있는 이상기후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급증 원인은 환경문제와 관련 있다. 일련의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나 생태계 교란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것은 임계점을 넘어 인류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엄청난 위협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ockström, 2009).

1. 하나님 중심의 생태학적 세계의식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숙고와 특별한 행위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위상은 정점에 달한다. 전통적으로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근거로 삼아 왔다(김균진, 1999, 24).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이후, 기독교는 생태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인간중심주의 해석을 받아들여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초를 이루었다. 린 화이트(White, 1967)는 소위 기독교의 인간중심적 사고가 생태계 파괴와 위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자연과학자들이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내세워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관철해 왔기때문이다(오영석, 1979, 119 재인용; White, 1967). 독일의 사회학자 게르하르트 카데(Kade, 1998)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 인간은 자연에 대한 무제한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왔다고 비난한다. 칼 아메리(Amery)도 인간의 무한한 변성과 풍요에 대한 추구, 인구의 과밀, 자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탐구, 자연의 억압, 착취, 파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시하는 창조신앙의 인간중심주의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에 가세하였다(김균진, 2004, 60 재인용).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다른 피조물을 단지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데 일조해 왔다는 것이 이러한 비난의 주된 내용이다.

몰트만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초가 인간중심주의 안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인간은 자연적 삶의 체

계들을 분석하고 대상화하면서 “나누어라. 그리고 지배하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이 세계의 한 지체가 아니라 주인과 소유자로 자신을 유아독존의 주체로 상정했다는 것이다(몰트만, 2017, 53). 사유하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자연을 정신이 아닌 물질로 나눈 데카르트(Descartes)의 이원론은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해 오던 신학적 해석으로부터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셈이다. 데카르트는 자연과학의 목적은 인간을 자연의 주인과 소유자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베이컨(Bacon)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자연은 가공되지 않은 원료로서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베이컨에게 인간은 명령하고 자연은 복종하고, 인간은 향유하고, 자연은 인간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거름일 뿐이다(오영석, 1987, 19). 이와 같은 근대철학의 자연 이해는 현대 과학 기술주의로 명명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낳았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힘의 획득 또는 상승을 위해 발전과 정복을 지향하도록 지배의 가치를 정당화시킨다. 하지만 몰트만은 현대문명의 자연지배 행렬은 소위 성서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서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은 3000년의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녀왔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과학 기술주의의 자연에 대한 본격적 이용과 파괴는 불과 400여 년에 불과하다. 몰트만에 의하면 자연에 대한 현대의 공격적 약탈은 창조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권리를 박탈하기 시작한 르네상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르네상스는 자연을 주인 없는 물건, 곧 점령을 통해 소유하는 자에게 속하는 물건으로 대상화하였다. 근대에 서구는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복하여 소유하였고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몰트만, 2017, 53). 여기에는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는 인간중심의 힘의 지배, 얹히 힘이 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적 자연관이 자리한다.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하나님에 상응하는 힘을 제공한다고 여긴 것이다. 힘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생태계를 향한 무제한 경쟁을 부추겼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물, 숲, 공기 등 자연은 하나님의 소유로써 피조물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맡겨졌다고 여겼다(김균진, 1999, 93).

몰트만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 명령이 정말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합법화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지난 수 세기 동안 땅의 통치(dominium terrae)를 정당화시킨 성서의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인간의 자연 지배권과 관계없음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창세기 1장 26-28절은 인간은 동물들과 함께 땅의 식물들이 생산하는 열매로 살아야 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몰트만에 따르면 “정복하라”는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창조자 하나님에 상응하여 인간이 땅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과 결부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한 거울로써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대칭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땅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동시에 사람은 땅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이 땅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일 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평화의 사귀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지와 돌봄을 뜻하는 것이지 자연 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지배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몰트만, 2017, 126).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세계를 창조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었다. 하나님 중심적 접근은 하나님 형상을 지님으로써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닌 인간에게 사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세계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힘의 발휘라는 가치의 표상이 아닌 신적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다. 그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면서 창조의 사귀를 형성하는 것이다. 창조 안의 사귀는 세계가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는 새로운 자기인식을 제공한다. 몰트만은 이를 “생태학적 세계의 식”이라 부른다(몰트만, 2017, 58-63).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로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고유한 정신도 창조되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인간과 자연은 주체와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귀” 안에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로 통합된다. 기독교 신앙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이다. 그러므로 인간 이성이 인식하고 지배할 수 있는 현실은 창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인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세계는 창조의 사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명 있는 미래의 창조를 향해 함께 개방된 창조 공동체이다(몰트만, 2017, 69-71).

2. 삼위일체론적 창조 세계의 사귀

몰트만(2017)은 창조된 모든 현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을 영적 본질로 이해했던 칼빈은 성령은 어디에나 임재하여 모든 것을 유지하고 양육하며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영은 세계 속으로 들어와 세계와 관련성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세계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면서 창조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이다(이오갑, 2006, 31). 몰트만은 칼빈의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교류를 강조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완성하는 사랑의 영이요, 모든 신적 활동에서 상호 사귀를 창조하는 영적 에너지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영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통하여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다.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은 파괴하는 무에 대항하여 세계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의 창조 안에 현존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씬 없이 불어넣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영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성령의 끊임없는 운동성에 의해 영적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생동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몰트만, 2017, 390).

창조 위에 부여된 성령은 하나님과 피조물, 피조물 상호 간의 기쁨을 창

조한다(시 96:11-12). 성령의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의 화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마틴 부버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림의 관계이다. 이 관계들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개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살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적 현존을 드러내도록 작용한다(부버, 2017, 110-111).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 세계의 화해와 사림을 “생태학적 세계의 사림”이라 명명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세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개체들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순환하는 생태학적 세계의 사림을 표상한다(김규진, 1999, 121). 기독교의 오래된 사고 중 하나는 하나님은 근원에 있어서 세계와 분리된 절대 타자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전통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이고, 세계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서로 혼동될 수 없는 명확한 구분을 선호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하는 신학적 사고는 환경의 위기를 순화하고 함께 살아남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세계를 분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인간중심의 기계론적 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바르트(Barth)는 신학적으로 창조가 하나님의 계시 위에서 발생했음을 부각하며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하는 관점을 대변한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존재 방식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은 한 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군주론적 접근을 대변한다(백충현, 2010, 109).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군주론적 접근은 창조에서도 유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계의 구별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바르트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요, 절대적 근원이요, 목적이며, 초월적 능력이다. 그에 반해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외적 실체의 총합이다(Gunton, 1998, 157).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을 화해된 관계로 선택하기로 하셨다. 창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외적 기초이다. 다시 말해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를 전제

하고 창조된 세계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처럼 지배와 순종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Moltmann, 2016, 262). 하나님과 세계를 배타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창조가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다. 신학이 자연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하고 과학이 인간의 결단과 행위의 영역인 역사에 집중하며 인간중심의 기계론적 사고를 앞세울 때부터 자연은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오히려 자연은 인간의 행위와 역사가 일어나는 무대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객체화된 전경 배경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김규진, 1999, 41).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상호 내주와 침투를 통한 영원한 사귀를 상징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 안에서 존재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는 사람과 세계에 개방되어 있고 서로의 사귀를 자신 안으로 수용하고 참여시키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도 상응하는 원리가 작용한다(몰트만, 2016, 131-132).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는 관계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의 사귀를 안내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창조된 생명들 위에 부어지면 창조 세계는 생명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사귀를 창조하는 것이다(박성권, 2017, 185).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면 세계는 허무한 시간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무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삼위일체론적 창조의 사귀의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세계를 상징한다. 아침의 여명과 함께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실존과 아름다움으로 생동하며 그 자체로 새 창조를 향한 미래의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세계가 생태학적 세계의 사귀으로 전향되는 종말론적 변화의 통전성을 보여준다.

3. 새 창조의 종말론적 비전과 안식일

토마스 아퀴나스(Aquinas) 이후로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에 대하여 말할 때 일반적으로 “6일의 사역”(hexaemeron)이라 기술한다. 6일의 창조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고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결과를 의미했다(von Rad, 1961, 43-44).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와 함께 완성되었고,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이해되었다(김규진, 1999, 108) 여기서 태초의 창조는 유토피아, 무죄, 에덴동산과 같은 근원적 표상을 이루고, 인류의 타락에 이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전경 배경이 되는 것이다. 6일의 사역으로 모든 창조의 사역이 끝난 것으로 접근하는 흐름은 일곱째 날을 통해 창조를 기뻐하고, 창조의 완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허술하게 다루어 왔다.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이러한 흐름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하나님보다 6일 동안 사역하신 하나님의 노동과 생산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표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의 사역에 대한 집중은 인간의 삶의 의미가 마치 노동을 통해 새로운 재화를 생산해 내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성과를 이루어 내야만 충족되는 것처럼 비치게 만든다.

출애굽기 5장의 내러티브는 계속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집트 파라오의 폭정 아래 노예 백성 이스라엘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연으로 상징되는 벗짚은 사람에게 노동과 생산이라는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터전이다. 휴식할 줄 모르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벽돌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연의 침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이집트의 노동과 생산시스템으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기에 이른다(Brueggemann, 2016, 29-30). 인류는 산업혁명으로 노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의 결합은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생산시스템 속으로 인간의 삶을 내몰았고 이제는 처리 불가할 정도로 많은 재화를 지구 위에 배출하였다. 한병철은 『피로사

회』에서 노동만 하는 인간은 과잉, 과다. 포화 상태에 아무런 대책 없이 내던져져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하는 인간은 생산과 성과라는 긍정성의 폭력에 의해 타자를 착취하다 못해 결국 자기 착취로 치달으며 착취자인 동시에 피착취자로 내던져졌다(한병철, 2016, 27-28). 노동과 생산이 정의로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착취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창조에 있어서 일곱째 날 안식하는 하나님은 6일 동안 노동하는 하나님과 비교해 적극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몰트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를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인간중심주의 신학 체계에서 벗어나 생태학적 창조론을 재고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생태학적 창조론은 태초의 창조, 역사적 창조, 종말의 새 창조를 포함하면서 최초의 창조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향하여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몰트만에 따르면 최초의 창조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구원의 역사 너머에서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변화를 기다리는데 이것이 창조가 완성되는 메시아 시대이다. 몰트만에게 안식일은 종말에 창조의 완성을 미리 축하하는 맛보기다. 안식일은 6일의 노동 다음에 오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날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룩한 날의 선포이다. 여기서 창조는 구원을 위한 무대와 배경으로 축소되기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몰트만은 로젠바이크(Rosenzweig)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은 그것을 축하하는 “창조의 축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몰트만, 2017, 409).

성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창조 세계와 함께 안식하셨음을 여러 본문을 통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창 2:2-3; 출 20:8-11). 특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사람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까지 쉬이 선포되는 안식일을 보여준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시내산 계명은 안식일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파라오 체제의 이집트 노동시스템과 대조적이다.

브루그만(Brueggemann)에 의하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하나님은 끝없는 일과 성과에 의존되지 않는다. 일곱째 날 안식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도 일과 성과에 의존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로서 쉬을 누릴 수 있는 존엄적 존재임을 규정한다(Brueggemann, 2016. 30). 안식일은 온전한 쉼 속에서 하나님, 이웃, 자연이 사귀를 가질 수 있는 관계적 삶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종말에 맞이할 새 창조의 완성된 비전을 예표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처음의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도록 선포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었고, 그가 창조한 세계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식일 명령은 6일의 노동 후에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날보다 안식일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될 종말의 새 창조를 지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몰트만, 2017. 421). 안식일은 모든 생동하는 존재들의 아름다움이 찬양되고 끝없는 사귀의 축제로 이어지는 완성된 새 출발의 날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안식년에 상응하고, 안식년은 희년을 가리키며, 희년은 끝없는 안식일인 종말을 향해 열려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역사를 넘어 창조가 완성되는 끝없는 축제를 가리킨다(몰트만, 2017, 426-427).

하나님의 휴식은 창조한 세계를 떠나 자연과 분리되어 피정을 떠나는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 안에 머물러 피조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안식하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평화가 이어진다. 평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평화는 다시 사람과 자연의 평화로 연결되어 안식일의 쉼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성을 불러온다. 안식일은 노동으로 자연을 침입하거나 파괴하는 인간의 약탈적 행위를 멈추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향유하는 영원한 사귀의 축제를 예표하는 날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해가 질 때 비로소 날기 시작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는 끝없는 안식의 맛보기이다(몰트만, 2017, 425).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은 땅 위에

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존재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함께 온전히 완성될 창조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Ⅲ. 생태학적 기독교교육의 통전성과 실천적 방향

생태계 위기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에는 특히 몰트만의 삼위일체론적 창조론의 통찰이 필요하다. 그의 창조 사상 안에는 생태학적 관심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생태학적 감수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몰트만의 창조론에는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였다는 하나님 중심의 생태의식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창조적 사귀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 안에서 피조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창조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구분짓는 데서 해방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사귀의 발판을 마련한다. 셋째,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온전성에 이르게 되는 새 창조에 대한 공동체적 희망을 제시한다. 노동과 생산에 가치를 두는 삶의 형태는 자연에 대한 끝없는 지배와 약탈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을 저지하는 요인이 된다.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안에서 세계의 사귀와 회복, 나아가 새 창조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통전성을 담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변화와 충격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제반 영역에서 생태학적 통전성을 재구성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계 파괴와 전지구적 삶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적 논의는 당연한 시대의 요구이다. 본 연구는 몰트만의 생태학적 창조론을 성서적, 신학적 전통에서

재고하면서 오늘날의 환경문제와 지속해서 대화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기독교교육의 생태학적 통전성을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교육적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하여 기독교교육이 봉착하게 되는 변화를 재확인하고 미래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창조공동체로서의 성례전적 기독교교육

1) 하나님 집(Oikos)에 거하는 창조공동체

파커 J. 파머(Palmer)는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관심은 다시 연결됨으로서의 관계 회복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곳곳이 패이고 찢어진 상태로 단절의 고통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Palmer, 2009, 14). 우리의 희망은 세계 속에서 찢어진 상태로 동떨어져 있는 각각의 주체를 어떻게 다시 창조의 사킴 안으로 온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서 찾아야 한다.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생태학적 통전성을 탐색하는 일은 단절의 고통에 신음하는 세계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가의 작업이다.

맥페이그(McFague)는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는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인간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하나님을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정복주의적 은유를 통해 절대적 주체자로 바라보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Mcfague, 2006, 121). 몰트만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주체자로 인식하는 전통적 하나님 인식 방법을 비판한다. 서구 역사의 지배적인 사고는 플라톤의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존재론적 이원론으로부터 데카르트의 정신과 사물 곧,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이분법에 소급된다(몰트만, 2017, 227-229).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파괴될 수 없는 질서로 언급하는 바르트의 계시신학도 같은 선상에 놓인다(김규진, 1999, 176-177). 이 흐름은 인간을 정신과 사유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우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연

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조는 창조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하나님의 구원이거나 인간의 삶에서 자연 세계를 배제하면서 배려 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비관계적, 비공감적, 심지어 반공동체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되어야 할 삶의 영역이요, 노동과 생산의 원천일 뿐이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고착된 결과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창조론은 성서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포함하면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새 이미지를 형성한다. 인간과 자연이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놓여 있음을 알린다.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의 임재를 그 중심 이미지로 삼는다(몰트만, 2017, 34). 그렇게 되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성립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인간은 자연과 함께 거하는 창조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는 동시에 모든 피조물 안에 임재하며 기쁨과 고통 속에서 피조물과 결합하여 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보았다(고전 6:19-20). 인간의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존하는 공간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다. 몰트만(2017, 255)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Oikos)이란 개념으로 대치하면서 창조의 비밀은 세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에 있다고 강조한다. 맥페이그(2006, 142)는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제시한다. 세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할 때 세계가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계는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세계는 창조의 사귀 속에서 서로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하늘과 별들이 존재하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삶의 공

간으로서 하늘, 바다, 땅의 환경이 갖춰져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실존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하며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공의와 자비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 안에서 하늘과 땅을 그의 영광으로 채우고, 세계는 하나님을 통해 생명으로 생동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삶을 영위한다. 하늘과 바다와 땅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 공간에서는 피조된 어떤 것도 지배적 위치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에 민감하고 균열과 분리에 저항하는 존재이다(몰트만, 2017, 278-279).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 하는 세계를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며 모든 피조물의 신음에 참여한다(롬 8:19).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종말에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새 창조를 바라본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 공동체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성례전 공동체

창조공동체의 본질은 성례전(sacrament)의 속성을 지닌다. 기독교 전통에서 성례전은 인간 실존 속으로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을 다루는 예전으로서 성만찬과 세례를 일컫는다. 예전으로서 성례전은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칼 라너(Rahner, 1967)에 의하면 성례전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둔 하나의 “예전”이라기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실제로 보여주는 실제 상징이다(양금희, 2016, 256-257 재인용; Rahner, 285). 상징은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로 연결된다(아우구스티누스, 1994, 31).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아닌 것 안에서 표현하는 분이다(양금희, 2016). 세계를 하나

님의 집으로 삼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사귀기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피조세계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성례전적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때 성례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 종말의 새 창조를 바라며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 활동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례전적 실체로서 창조공동체는 다른 말로 성례전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교육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과 회개, 성장, 변화에 교육의 초점이 있었다. 기독교교육에서 지시하는 성례전 교육 또한 교회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 안에서 행하여지는 기독교 의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생태학적 세계의식은 생태계와 기독교교육의 관계에서 성례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인간만으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세계 구석 구석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 안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의 대상으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례전적 실체로서 함께 연결되어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학적 세계의식은 기독교교육이 인간을 넘어 자연환경으로 구원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운다. 이제까지 기독교교육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머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구원의 방법으로서 성례전적 삶을 축하하고 예찬하는 의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생태학적 세계의식은 교회 공동체의 기능으로서 케리그마(Kerygma), 코이노니아(Koinonia), 디다케(Didache), 레이투르기아(Leiturgia), 디아코니아(Diakonia)가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하여 생태학적 성례전으로 전환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케리그마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구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연을 향한 약탈적 생태의식을 일깨우는 예언자요, 자연의 변호자로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실제 삶에서 표출하는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코이노니아는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생태의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고통을 지각하며 극복하기 위해 온전한 새 창조를 향해 창조공동체를 하나로 엮어내는 교육적 사림의 가능성을 창조한다. 이때 필요한 교육적 요소는 관계적 사림이다. 세계를 분리하고 단절하는 대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려는 사림의 관계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되게하는 성례전적 삶의 기초이다. 디다케는 세계를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가기 위해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곳에서 작용한다. 우리에게 당면한 환경의 문제를 구체화하여 가르치고 기독교적 해석을 공유하며 자연세계를 향한 배려를 습득하는 공간으로 디다케를 활용할 수 있다. 배려는 지배와 착취의 형태를 버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각 피조물의 터전을 존중하므로 세계를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이는 생태학적 세계의식의 실제적 표현이다(조미영, 2021, 431). 레이투르기아는 교회 공동체가 초월적 존재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를 경배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 창조 안에서 피조물과 사림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공동체의 변화를 매개한다. 개인 또는 공동체의 감사, 찬양, 참회, 탄원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아가 자연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통전적 사랑의 연합이라 볼 수 있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의식이 실제화 되는 공간이다. 봉사과 섬김은 생태학적 성례전을 위한 실천의 장이다. 기독교교육은 생태계 현장에서 봉사과 섬김을 통해 창조공동체의 성례전적 삶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봉사과 섬김은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 기독교교육은 교회 공동체 내부의 교육과 현장을 통한 행동, 철저한 자기성찰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회복과 새창조를 일구며 디아코니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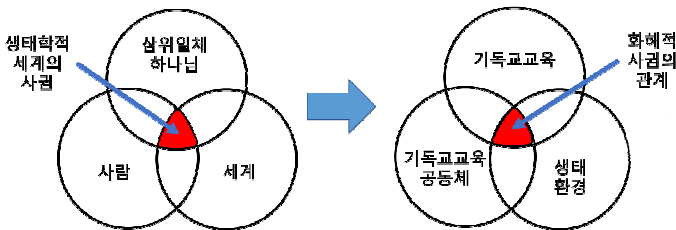
2. 화해적 사귀를 이루는 기독교교육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는 자연의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몸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한 기존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보프(Boff, 2013, 74)에 의하면 생태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사슬처럼 연결하면서 복잡하지만, 완성 관계를 형성한다. 몰트만은 사람의 현실을 “신체, 영혼, 영”으로 분석하여 관찰하는 것은 사람과 생태계의 통전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 비판한다. 서구 인간학의 역사는 대체로 인간을 몸에서 분리된 정신으로 보았다. 몸을 극복되어야 할 대상 혹은 다스리는 영혼, 섬기는 몸이라는 관점 아래 영혼의 정신화, 신체의 사물화를 탄생시켰다. 몸에 대한 영혼의 지배는 세계를 정신을 위한 구성물로 대상화시켜 놓음으로써 오늘날 생태 문제를 일으키는 원조적 폭력성의 기원이 되었다(몰트만, 2017, 362).

몰트만(2017, 364)은 프리드리히 외팅어(Oettinger)의 “신체성(Leiblichkeit)”이라는 개념을 빌어 서구 인간학의 이원성과 정반대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신체성은 몸과 영혼이 서로를 보충하기 위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창조되어감의 관계들 속에서 전체로서 상호순환하는 사귀의 관계를 함축한다. 사람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파트너적 사귀를 표상한다. 이는 영원한 사랑의 풍요함 가운데 순환적 사귀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전성에서 출발한다(김균진, 1987, 181).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보여주듯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의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 이해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서로 순환하는 사귀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도 상응하는 원리가 작용한다. 사람은 땅 위에서 피조된 현실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지배적 위치라기보다 환경 안에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활동을 드러내는 화해적 존재이다.

성서 전통에서 화해적 사권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생태환경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입장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권 안으로 초대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헌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음에 도달할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권 안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치유한다. 사람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신체성 속에서 치유와 파괴될 수 없는 가치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계와 화해를 이루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자 창조의 종점이다(몰트만, 2017, 383).



[그림 1] 화해적 사권의 관계로서 기독교교육의 역할

[그림 1]은 화해적 사권으로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보여준다. 기독교교육은 기독교교육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과 세계의 화해를 위해 고난받는 주체로서 세계 문제에 헌신할 것을 요구받는다. 부버(Buber, 2017, 19-20)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관계가 펼쳐지는 세 개의 영역을 언급한다. 첫 번째 영역은 자연과의 공동생활이다. 생태계는 움직이지만, 사람과 관계되지 않는 분리된 관계이다. 이 관계는 언제나 나의 태도가 자연과 환경을 그것으로 대상화한다. 자연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지배적 방관자로 존재하며 자연을 이용할 뿐이다(이향순, 2019. 420). 세계와

사킴의 관계를 이룩하려면 두 번째 사람과의 공동생활 영역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공동생활은 세계를 대상화하지 않고 사킴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생태학적 기독교교육의 실재를 표현한다.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이 세 번째 정신적 실재와의 공동생활 영역이다. 셋째 영역은 그동안 대상으로 방치했던 세계의 고통을 감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작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세계의 공동생활이 회복된다. 셋째 영역이 기독교교육 공동체의 역할이다. 이때 중요한 교육적 요소는 헌신이다. 자연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다. 기독교교육 공동체는 세계의 보호와 돌봄에 직접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와 동일시됨으로써 생태계의 고통을 수용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실질적 참여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세계는 창조의 사킴 안에서 비로소 화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몰트만(2017)에 의하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이다.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의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자연 세계는 그 자체가 완결된 결정체로서 홀로 던져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완성될 미래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 개방된 세계는 규정된 상태로 존재하기보다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목적성 있는 사건으로 존재한다. 자연환경의 손상과 파괴는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며 창조 목적을 역행하는 것이다(김규진, 1987, 97). 자연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이다. 인간과 세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다. 하나님, 사람, 세계는 순환하는 사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서 전통에 따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신 10:14-15). 그리스도는 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과 손상당한 세계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몰트만, 2017, 330).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계 안에서 화해적

사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화해적 사권으로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은 파괴된 자연환경 안에서 실천적 헌신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획하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안희경, 2021, 35).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성한 경제용어이지만 지역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생태환경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실천에 유익한 접점을 제공한다. 세계의 지역화 움직임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고할 여지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성을 구축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소규모 단위로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작지만, 내실이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시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생활 터전이 그것이다.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를 구성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기독교교육적 실천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교회는 교회 구성원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피어 어셈블리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교회가 일정 기간 지역 환경운동에 봉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사용하는 전력을 화석연료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 시설에 투자하는 방법도 지역사회에서 녹색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 녹색 전환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기반은 헌신이다. 이러한 헌신의 과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지역 교회공동체는 생태학적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직적으로 자연 세계의 고통에 대하여 화해의 주체로서 공동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일정한 물리적 실천의 영역을 넘어서 종말론적 새 창조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막스 셸러(Sheller)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얽매어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가 처한 환경을 넘어 세계를 향해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초월성을 지닌다고 말한다(Frings, 2003, 34-

35). 인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 형상의 힘으로 세계의 보존과 회복에 화해적 역할을 감당하는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세계와 함께 창조의 완성과 끝없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종말론적 소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삶의 프락시스를 위한 기독교교육

헤셸(Heschel, 2021)은 기술문명이란 본래 자연의 힘을 정복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과업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환경을 점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기술문명은 그것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인간의 습성 안에는 이미 존재가 아니라 소유가, 비움이 아니라 움켜잡이, 나눔이 아니라 지배가, 조화가 아니라 정복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은 이와 반대의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성취하고 순환되는 노동과 생산에 관심을 두기보다 일곱 번째 날 안식을 향해 나가는 시간의 사역에 무게가 실린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 대신 존재가, 움켜쥐 대신 비움이, 지배가 아니라 나눔이, 정복이 아니라 조화의 프락시스가 목표가 된다(Heschel, 2021, 41-42). 몰트만(2017, 409)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태초의 창조, 역사적 창조, 종말의 새 창조로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본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쉼에 있다.

안식일은 끊임없이 순환되는 공간의 욕망에서 잠시 힘을 비축하기 위해 존재하는 막간이 아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착취하는 안식이 없는 사회로 규정한다. 브루그만(2016)은 무한 생산시스템 아래 안식하지 못하고 움켜쥐기에 바쁜 현대사회에 대한 저항을 안식일로 바라본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한 날이다.

안식일에는 노동에 따른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만끽하고 생명을 경축하는 것이다(Heschel, 2021, 59). 노동에 따른 수고로부터의 안식은 인간, 가축, 자연까지 생명을 경축하고 회복하시는 대상에 포함된다(류삼준, 2021, 335).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휴식은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창조로부터의 쉽이다. 창조의 휴식은 그의 피조물들의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둘째, 사역으로부터의 쉽이다.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지 않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있게 한다. 세계는 하나님 앞에 실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귄은 모든 피조물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자유이다. 셋째, 사역 안에서의 쉽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들 안에서도 휴식한다.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해 존재하면서 동시에 안식을 통해 창조 안에 머물러 현존하는 것이다(몰트만 2017, 412-414).

기독교교육은 성격상 안식 없는 세계를 지양하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경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안식일의 원리 안에는 지속해서 순환되는 자연 주기로서의 노동의 가치보다 끝없는 축제를 향해 나가는 쉽의 프락시스가 들어있다. 쉽의 프락시스는 창조 세계를 향한 생명 수여(life-giving)와 종말의 미래를 향한 생명주기(life-cycle)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생명수여(life-giving) 프락시스는 우선 일을 그치는 행위를 전제한다. 일을 그치는 행위는 노동에서 기인하는 절망, 환멸, 소외, 착취의 그침을 의미한다. 한병철은 『시간의 향기』에서 일의 그침을 “모든 목적 지향적 행위에서 해방되는 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날, 욕망을 비워내고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생겨나는 좋은 시간”으로 그려놓는다(한병철, 2013, 125). 그침은 사랑이다. 그동안 인류가 자신과 자연을 향해 가득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면 기독교교육은 그 구성원들이 그치고 비워서 세계가 자연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멈춤의 실천을 안내할 수 있다. 멈춤은 자연을 향해 생명을 수여하는 사랑의 행위이다.

생명주기(life-cycle) 프락시스는 물리적 날짜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안식일 지킴이로서 기독교교육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은 안식일을 축하하므로 하나님의 쉼 안으로 세계를 초대할 수 있다. 노동이 불행의 원인이었다면 쉼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게 한다. 존재에 집중하다 보면 비움, 나눔, 조화가 삶의 습관으로 찾아온다. 앞서 주지했듯 소유에 대한 욕망은 세계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안식일을 통한 육체의 쉼은 사람과 자연이 각각의 존재 방식 그대로 안식일의 평화를 누리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사귄의 원리이다. 생명주기(life-cycle)는 안식일 영성을 기반으로 한다. 안식일 영성은 신비하고 장엄한 창조의 절정에서 만나는 거룩에 대한 경탄이다. 거룩(*q̄d̄š*)은 하나님과의 사귄을 지속하게 하는 공동체의 규율이었다(출 20:8). 토라 전통은 안식일 규례에서 창조자를 향한 공동체의 갈망을 거룩으로 이해했다. 거룩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귄 안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기운이자 생명의 원천임을 알린다(Heschel, 2021, 64-71). 그래서 안식일은 기독교 공동체만의 독특한 의식에 머무르기보다 공격적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의 의례로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은 채우고 소유해야 하는 움켜쥘의 공간에서 창조의 축제를 향해 비우고 개방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른다는 기쁨을 선물한다. 세계는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려는 노동 주기를 중단하고 창조자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그의 돌보심으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안식일 지킴은 기독교교육만 할 수 있는 습관의 교육이다. 안식일 선언은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게 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안식일 선언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기도, 평안의 습관이 자리한다. 긴장을 그치고, 노력을 멈추고, 다른 사람과 세계를 향해 심각한 해를 끼치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쉼 줄 알게 하는 생명주기를 따르는 교육이 안식일 지킴이 교육이다. 사람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접근은 안식일 지킴이로서 기독교교육의 회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몰트만의 창조론은 오늘날 생태환경의 훼손과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독교교육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생태학적 통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의 생태의식을 강조한다. 하나님 중심의 생태의식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땅 위의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간의 사귀는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세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귀의 원형이다. 하나님, 인간, 세계는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과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창조공동체이다. 셋째, 안식일은 노동과 생산이 작동하는 6일의 사역이 아니라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안식일은 창조의 사귀 안에서 하나님, 인간, 자연이 함께 누리게 될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한다. 종말론적 안식일 비전은 서로에게 소외된 사람과 자연을 창조의 사귀 안으로 초대하는 가능성이다.

결과적으로 몰트만의 창조론은 기독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생태학적 감수성을 제공하며 기독교교육의 의미와 실제적 역할을 세 가지 방향에서 안내한다. 첫째,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 하나님 집에 함께 거하는 창조공동체라는 새 이미지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다. 자연과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례전 공동체이다. 둘째, 기독교교육은 사람과 세계의 사귀를 중재하는 고난받는 주체로서 생태환경의 회복에 화해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독교교육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교회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실천적 주체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창조를 경축하기 위한 쉽의 프락시스를 제공한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순환되는 인간의 욕망에 함몰되고 있다. 기독교교육은 안식일 지키기 교육을 실질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경축하고 무너진 생태계가

재생되는 데 구체적인 보탬을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균진 (1987).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사상**, 31(6), 168-183.
[Kim, K. C. (1987). Triune God. *The Christian Thought*, 3(16), 168-183.]
- 김균진 (1999).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K. C. (1999). *Ecosystem crisis and theology*. Seoul: The Christian Liteature Society of Korea.]
- 김균진 (2004). 기독교의 유일신론이 생태계 위기의 원인인가. **신학논단**, 35, 53-76.
[Kim, K. C. (2004). Is christian monotheism the cause of the ecological crisis? *Theological Forum*, 35, 53-76.]
- 김은주 (2020).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제언. **기독교교육논총**, 63, 347-376.
[Kim, E. J. (2020). Direction and practical proposal for christian education through ecological christian spiritual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3, 347-376.]
- 류삼준 (2021).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7, 339-375.
[Ryu, S. J. (2021). Christian sabbath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era of 'Life cri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7, 339-375.]
- 박성권 (2017). **몰트만의 생명신학**. 서울: CLC(기독교문서선교회).
[Park, S. K. (2017). *The lif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Seoul: CLC.]
- 백충현 (2010).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와의 관계에 대한 칼 바르트의 상호 상응의 입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장신논단**, 37, 85-115.
[Bake, C. H. (2010). Karl Barth's reciprocal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manent trinity and the economic trinity critical consideration 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37, 85-115.]
- 안희경 (2021). **오늘부터의 세계**. 서울: 메디치.
[Ann, H. K. (2021). *World from today*. Seoul: Medici.]
- 양금희 (2016). 라너와 몰트만의 '성례전적 교회'에 나타나는 "세상을 향하는 교회"와 기독교교육 패러다임. **장신논단**, 48(2), 253-280.

- [Yang, G. H. (2016). "The church to the world" and christianity in Rahner and Moltmann's "Sacramental church" education paradigm.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2), 253-280.]
- 오영석 (1987). 생태계의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 31(11), 11, 109-127.
- [Oh, Y. S. (1987).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ecosystems. *The Christian Thought*, 31(11), 109-127.]
- 이오갑 (2006). 칼빈의 섭리론. **한국조직신학논총**, 16, 9-36.
- [Lee, O. G. (2006). Calvin's providence.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6, 9-36.]
- 이향순 (2019). 공감(empathy)에 기초한 타자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 교육논총**, 60, 405-435.
- [Lee, H. S. (2019). A study on other-oriented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empath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6, 9-36.]
- 조미영 (2021). 기후변화의 위기와 기독교 생태교육의 방향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67, 415-447.
- [Cho, M. Y. (2021).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ecolog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7, 415-117.]
- 한병수 (2019). 사랑의 해석학: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51(3), 9-39.
- [Han, B. S. (2019). Hermeneutics of love: Focusing on Augustine.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1(3), 9-39.]
- 한병철 (2013). **시간의 향기**.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저, 2009 출판)
- [Han, B. C. (2013). *Duft der zeit*. Translator: Kim, T. H. Seoul: Moonji Publication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09)]
- 한병철 (2016).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저 2010 출판)
- [Han, B. C. (2016). *Müdigkeitsgesellschaft*. Translator: Kim, T. H. Seoul: Moonji Publication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 Augustinus, (1994). **기독교교육론**. 김종흠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저 1958 출판)
- [Augustinus, St. (1994). *Christian education*. Translator: Kim, J. H. Station. Seoul: Christian Digest.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58)]

- Barth, K. (2015). **교의학 개요**. 신준호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저 1947 출판)
[Barth, K. (2015). *Dogmatik im grundriß*. Translator: Shin, J. H. Station.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Co.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47)]
- Boff, L. (2013). **생태신학**. 김항섭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원저 1993 출판)
[Boff, L. (2013). *Ecological theology*. Translator: Kim, H. S. Station. Seoul: The Catholic 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3)]
- Brueggemann, W. (2016). **안식일은 저항이다**. 박규태 역. 서울: 복있는사람. (원저, 2014 출판)
[Brueggemann, W. (2016). *Sabbath is resistance*. Translator: Park, G. T. Station.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Co.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4)]
- Buber, M. (2017). **나와 너**. 김천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5 출판)
[Buber, M. (2017). *You and I*. Translator: Kim, C. B. St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er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5)]
- Frings, M. (2003).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금교영 역. 서울: 한국학술정보. (원저 1965 출판)
[Frings, M. (2003). *Understanding Max Scheller's philosophy*. Translator: Geum, K. Y. Station.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65)]
- Heschel, A. J. (2021). **안식**.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 사람(원저, 2005출판)
[Heschel, A. J. (2021). *(The) sabbath*. Translator: Kim, S. H. Station.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Co.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5)]
- Mcfague, S. (2006). **어머니, 연인, 친구**. 정애성 역, 서울: 뜰밖, 2006. (원저 1987 출판)
[Mcfague, S. (2006). *Models of God: Theology for an ecological, nuclear age*. Translator : Jeong, A. S. Station. Seoul: Outside the Yard publishing Co.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7)]
- Moltmann, J. (1982).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80 출판)
[Moltman, J. (1982).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Translator : Kim, K.

- C. St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er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0)]
- Moltmann, J. (2016).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80 출판)
- [Moltman, J. (2016). *In der geschichte des direieinigen Gottes*. Translator : Lee, S. G. St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er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0)]
- Moltmann, J. (2017). **생명의 영: 총체적 성령론**.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91 출판)
- [Moltman, J. (2017). *Der geist des lebens: Eine ganzheitliche pneumatologie*. Translator: Kim, K. C. St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er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1)]
- Moltmann, J. (2017).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원저 1985 출판)
- [Moltman, J. (2017). *Godttes in der schöpfung*. Translator : Kim, K. C. S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5)]
- Palmer, P. (2009).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원저 1993 출판)
- [Palmer, P. (2009). *To know as we are known*. Translator: Lee, J. T. Station. Seoul: IVP.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3)]
- Gunton, C. E. (1998). *The triune creator: A historical and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 Moltmann, J. (1984). The unity of the triune God: Comprehensibility of the trinity and its foundation in the history of salvation.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28, 168-323.
- Rahner, K. (1967). Zur theologie des symbols, *Schriften zur Theologie* IV. Einsiedeln: Benziger.
- Rockstrom, J. R. (2009). Planetary boundaries: Exploring the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 *Ecology and Society*, 14 (2). [online] URL: <http://www.ecologyandsociety.org/vol14/iss2/art32/>
- Von Rad, G. (1961). *Genesis*. ed. and trans. John Mar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White, L.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3767), 1203-1207.

ABSTRACT

A Study on Moltmann's Creationism and the Ecological Integrity of Christian Education

Hyangsoon Lee

Lecture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face of ecological crisis and the task of its recovery from the perspective of Moltmann's creation theory. Mankind has achieved epoch-making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several industrial revolutions. However, as a result, the ecosystem has suffered severe physical aches and has reached the point of revealing anomalies. In the face of such destruction and suffering of the ecosystem,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approach the ecological sensitivity toward the natural world more holistically and present a practical alternative. Moltmann reminds us that today's growing exploitation of nature by humans stems from a human-centered ecological consciousness that the world belongs to humans. At the same time, it suggests a transition to a God-centered ecological world consciousness. 'A community of creation', 'the fellowship of the Triune God', and 'eschatological new creation through the Sabbath' are key concepts that integrate God-centered ecological world consciousness. Based on Moltmann's creation theory, this article examines the ecological sensibility that Christian education should pursu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acramental creative community, and reviews the role and practical alternatives of Christian education. Through this, it was derived that the world, including humans, is not owned by humans, but is a sacramental community that is built together

toward the end as a part of nature and reveals the glory of God.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Christian education need to be recognized as a suffering subject which mediates humanity and the nature of the mutu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n the fellowship of God. Sabbath keeping education, which celebrates God's creation and aims for the completion of the eschatological creation, will become a practical area for Christian education to practice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llapsed ecosystem. Moltmann's creation theor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meaningful Christian educational insight to restore the ecological environment as well as interest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that has been overlooked or ignored by Christian education.

《 Keywords 》

ecology, Christian Education, environmental crisis, Moltmann, creationism, Sabbath

- 투고접수일 : 2022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29일